

새 변이발재유행 현실화?...BN.1 검출 한달새 5배 '깡충'

주간 확진자 중 14.69%는 재감염...누적 81만여명 '우세종' BA.5 60.5%로 감소...BN.1은 17.4% 증가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던 BA.5 변이 검출률이 지속 감소하는 대신 새로운 변이인 BN.1의 검출률이 최근 한 달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당국은 새로운 변이를 통한 유행 규모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했다.

입숙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주간 위험도가 중간 단계로 평가된 건 지

난 10월 4주 이후 7주째다.

임 단장은 "신규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안정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대비 11.2% 증가한 41만2707명,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 8958명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수치 1.0 이상을 8주 연속 유지하고 있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14.69%로 직전 주 13.29%보다 증가했다. 지난 4일 기준 누적 확진자 2633만 876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3.09%인 81만 6049명이

다.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51명으로 전주 대비 6.2% 증가했으며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4.9% 감소한 444명이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우세종인 BA.5의 검출률이 60.5%, 국내 감염 중에선 64.3%로 나타나 10월부터 지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국내감염 중 BA.5의 검출률이 60%대로 소한건 우세종이 된 이후 처음이다.

반면 BN.1 변이는 13.2%에서 17.4%로 증가했고, BQ.1, BA.2.75 등의 변이도 전주 대비 검출률이 증가했다.

BN.1 변이는 '켄타우로스'로 불렸던 BA.2.75의 하위 변이이다. 국내에선 지난 9월 22일 최초 검출됐으며 검출률은 11월 1주차 3.5%에서 12월 1주 17.4%까지 증가했다. 임 단장은 "주로 해외 유입 사례에서 많

이 증가하기 시작해 국내에서 확산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를 봤을 때 BQ.1이나 BQ.1.1과 같은 다른 변이에 비해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BN.1의 증가 속도가 기존 BA.5만큼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단장은 "지금 유행하는 여러 변이들이 모두 오미크론 하위 변이이고 면역 회피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BN.1 점유율이 앞으로 지속 증가하면서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BN.1 변이에 대해 유효한 항체치료가 있고 현재 접종 중인 백신도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은 "BN.1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

인 만큼 현재 접종 중인 2가 백신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평균 35.8%로 전주 대비 1.9% 포인트 증가했다.

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중환자실 가동률 등 방역 대응 역량을 고려해 실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다가 겨울철에 재유행이 오면서 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전체적인 방역 대응 역량을 고려해서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욕하지 마세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15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에서 초등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감기약 수급 비상...중국·미국 '품귀'에 우려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중국산 원료가 80%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 미국, 유럽 발 감기약 품귀현상으로 해외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급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일 제약회사 18곳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650mg) 해열진통제 18개 제품에 대해 긴급생산명령을 내렸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은 감기약 중 가장 많이 쓰이는 해열진통제다. 안센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일 최대 20만 명) 및 독감 동시 유행 시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충분한 물량의 해열진통제 확보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해열진통제 수급동향 및 대응 방안"을 통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공급을 확보하고 내년 4월까지 60%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한시적으로 이들 감기약의 건강보험 약값을 인상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세계 각국의 해열진통제, 항생제 품귀 현상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와 사재기로 인해 감기약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이 동시 확산되는 '트리플데믹'이 일며, 각종 항생제, 해열진통제가 품귀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약제는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등록된 원료의약품등록(DMF) 공고를 보면, 아세트아미노펜 113건 중 중국에서만 제조되는 원료는 90건으로, 80%에 달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소아에게 조제할 감기약, 항생제 등 중요한 약제들의 수급이 어려운데 중국과 유럽에서 계속 수요가 커지면 국내에서도 공급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약회사에서 무한정으로 공급할 순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감기약 원료 등의 수급에 문제가 있거나 특이 동향이 있는 경우 공유해 달라고 유관 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